

SELF INTRODUCTION

임한솔 (Hansol Lim)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버 개발자

molmoty@gmail.com

+821051820520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 갱지에 프로그래머라는 장래희망을 적어낸 것부터 치면 햇수로 10 년, 근무년도로는 4 년 경험의 개발자 임한솔입니다.

특성화고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개발자로 취직, 병역까지 산업 기능요원이라는 특례로 해결하여 올해 11 월이면 끝이 납니다.

졸업 후에는 SI 업체에 취직하였는데, 업력이 오래되어 나름 해당업계에서는 입지를 가진 개발자들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잡다한 사무업무지식, 그리고 다양한 주문 시스템들의 비즈니스 로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들과 사회경험을 쌓으며 겪을 줄 몰랐던 맥락 없는 자신감과 친화력 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모난 성격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SI 업계 특성상 빨리, 많이 만드는 것에 특화되었기에 전문적인 개발 지식을 쌓기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당시 병역특례를 막 시작중이었기 때문에 이직할 생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저는 "이중생활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개발자, 디자인 연합 동아리인 Nexters 에 입단하였습니다.

동아리 생활은 SI 업계가 아닌 여러 서비스 회사들의 사람들을 만나며 개발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활동엔 동아리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니 자연스레 두번째에 과분하지만 임원으로 추천 받아 동아리의 CTO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성인들을 상대로 면접관이 되어보았고 동아리 결과물을 운영하는 인프라관리와 동아리원들의 프로젝트 진행 총괄을 해보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총 1 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정신을 돌려 주위를 보니 전혀 발전하지 않은 조직과 개발자들이 보였고 저는 그 날로 염증을 느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눈치밥에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환경인 지라 퇴근 후어나 작업할 수 있는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특으로 입사 가능한 여러 회사 면접을 보았고 결국 지금 다니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사회인으로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면 이 회사로 이직 후에는 개발자로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직과 쿼리의 효율성 고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데이터의 양, VCS 에 의한 깔끔한 버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화 ... 철저한 문서화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덕분인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수인계" 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 했고 코드리뷰문화 또한 새로웠는데, 생전 코드 리뷰는 받지 못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곳에서 저는 "모던한 개발자" 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당시에 공부는 쓸데 없는 것이라 여기며 일찍부터 컴퓨터로 놀았지만 지금은 그 귀중한 것을 왜 넘겼을까 후회하며 대학교 1 학년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과목들과 친구들을 겪어보니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참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계속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려 합니다.